STRANGER

<STRANGER>는 매 호의 주제에 맞춰 대안 동화를 소개하고, 리뷰하고, 비평하는 대안 동화 매거진이다.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나날이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권 가치의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동화들은 이와 반대되는 여러 가치를 함축하고 있으며, 우리를 편견에 물들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기존 동화의 문법에서 자유로운, 더 많은 대안 동화가 필요하다. <STRANGER>는 대안 동화를 '읽고 싶게' 만듦으로써 이러한 인식 개선과 인권 교육에 기여하려 한다. 그러나 <STRANGER>는 어린이가 아닌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대안 동화를 접한 경험이 없는 이들이 대안 동화의 존재를 인식하고, 읽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졸업전시에서 만들어지는 <STRANGER>의 첫번째 이슈는 ‘동화 속 엄마들’이다. 여러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며 동화에서 엄마라는 존재는 어떤 식으로 다뤄져왔고, 다뤄지고, 다뤄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ㄴ